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2강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19일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두 번째 강사로 나선 민주당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호남 정치의 미래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민주당과 호남은 '공동운명체' "호남민심 잃는 건 심장 잃는 것"

민주당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9일 "대선 실패는 호남과 민주당에 너무나 큰 절망을 안겨줬고,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호남인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 뒤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두 번째 강사로 나선 박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호남의 민심을 잃는 것은 심장을 잃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호남은 성공

과 있다"며 "이 때문에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극심하고, 그 대안으로 안철수 전 교수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 전 교수의 '새 정치 바람'을 '태풍'으로 비유하면서 "강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전 교수가 대선에서 새 정치 바람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 바람은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총선과 대선까지 계속 분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한다"며

박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만 쳐다보고 몸을 사린 의원들의 기회주의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친노 패권주의, 그에 따른 선거전략 부재가 대선 패배를 가져왔다"고 진단한 뒤 "하지만 여전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세력적 계파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 민주당 상황과 관련해 "대선에 패배했지만, 성찰과 혁신은 미흡하고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없는 위기"라며 "흔들렸던 중도개혁 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중복세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공천도 강조했다. 그는 "기초에서부터 광역까지 의회와 단체장을 거의 전원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확실한 개혁공천을 통해 음습한 환골탈태를 없애고 깨끗한 지방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끝으로 "호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의 뿌리이고, 한국 정치의 미래다. 호남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대한국의 미래를 창조하고, 호남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강력한 심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내년 지방선거 확실한 개혁공천해야

### "안철수 바람 강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

과 실패를 함께 한 공동운명체로서 다시는 패배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민주당이 머리카락 끝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환골탈태를 반드시 이뤄 호남의 민심을 얻고 새로운 정치를 담아내는 큰 그릇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전 교수로의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호남 민심을 다독이는 데도 주력했다.

그는 "지금의 호남과 민주당에는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에 방황하

"신당 창당은 야권 분열의 씨앗인 만큼 안 교수는 민주당으로 와서 새 정치혁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선비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이 필요하고, 망원경처럼 멀리 보고 현미경처럼 자세하도 봐야한다"며 "안 전 교수가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야권 연합연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당내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한 주류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 탐사보도 '부실 투성이' 전남 산업단지 개발

# 기업유치·고용창출 장밋빛 기대

### 무분별한 개발 왜

## 17곳 공사중·9곳은 추진 단계장 치적쌓기 지적도

최근 전남지역 시·군의 지역경제 정책은 산업단지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마다 최소 1곳 이상의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표 참조)

산업단지는 일단 500억원 이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만, 분양만 제대로 되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일선 시·군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박'이다. 전남지역의 낮은 토지가격과 임금, 잘 갖춰진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최근 수도권 등에서 이전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도 자극이 되고 있다.

자금 조달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나주시, 함평군, 목포시 등은 모두 이번 산업단지 분양을 자신하고 있다. 동함평산단의 경우 평당 40만원 이하, 나주미래산단은 50만원대, 목포대양산단은 80만원대에 분양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이미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40여개 업체가 이전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주시는 중국업체들이 부지를 분양받아 외국인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약속'에 불과하고 산업단지가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경수 광주대 교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자칫 재정과탄까지 불러올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분양이 다 되더라도 지역에 남는 수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각 시·군에 산업단지 조성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전남도 역시 일선 시·군에 투자자문회사를 소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애초 동함평산단 조성 역시 전남도가 주도했고, 투자자문회사 2곳을 함평군에 소개하기도 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자금 조달을 위해 4곳의 업체와 접촉했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전남도가 추천한 곳이었다"며 "조건이 그나마 가장 나은 곳과 협약해 조성했는데 이 같은

### ■전남산업단지 지정 및 추진현황 (지자체 말 한체)

산단구분	시군	명칭	지정면적(천㎡)	시행사	시업기간	
합계(천㎡)		38개소	246,478			
국가산단		5개소	173,932			
준공(2개소)	여수	삼일비죽	4,162	한국석유공사	'91~'08	
25,047	영암	대불	20,887	토지공사, 전라남도	'89~'97	
공사중(3개소)	여수	여수	50,253	수자원공사, 여주시, 실수요자	'87~'13	
148,883	광양	광양	96,405	토지공사, 광양시, 실수요자	'82~'50	
	함평	빛그린	2,225(총 4,081)	한국토지주택공사	'09~'16	
일반산단		27개소	42,053			
준공(7개소)	여수	오천	222	중소기업진흥공단	'81~'83	
	순천	순천	583	토지공사	'77~'84	
	나주	문평	323	나주시	'79~'89	
	나주	나주	549	나주시	'94~'11	
	화순	생물의약	755	화순군	'06~'11	
	영암	삼호	2,971	현대삼호중공업	'91~'11	
	광양	신금	459	신금지구개발(주)	'08~'12	
	목포	삼진	278	C&S중공업	'07~'13	
	목포	대양	1,562	목포대양산단(주)	'08~'15	
	목포	세리믹	116	목포시	'09~'13	
	여수	울촌 I	9,193	GFEZ	'94~'13	
	순천	해룡	1,606	순천시·대우건설	'98~'14	
	나주	미래	2,954	나주시	'08~'15	
공사중(17개소)	나주	신도	299	나주시	'09~'12	
	장흥	바이오식품	2,920	전남개발공사	'08~'14	
	강진	환경	660	강진군, 전남개발공사	'08~'13	
	해남	화원조선	2,058	대한조선(주)	'07~'13	
	영광	대미전기자동차	1,641	(주)달글로리	'08~'13	
	함평	근대	685	고려중공업(주)	'07~'14	
	함평	동함평	742	함평군	'11~'14	
	영암	용당	351	현대삼호중공업	'08~'15	
	여수	모도	368	(주)찬안	'11~'14	
	광양	익신	474	광양익신산단 개발조합	'08~'15	
	장성	나노	902	한국산업단지공단	'07~'15	
	실시계획중(3개소)	여수	울촌 II	3,792	울촌제2산업단지개발(주)	'97~'20
	9,382	광양	함금	2,590	광양하이(주)	'10~'15
	광양	세풍	3,000	광양개발(주)	'10~'15	
소계		6개소	30,493			
사업시행자 모집중	여수	울촌 III	9,762	미정	'16~'20	
	광양	성향	1,017	미정	'16~'20	
	보성	신소재	1,952	미정	'08~'15	
	곡성	곡성	1,649	미정	'08~'15	
	신안	조선타운	13,355	서남조선산업개발(주)	'09~'12	
	고흥	도양	2,758	미정	'08~'13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시·군들이 산단 조성에만 매달리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방채 발행규모를 해당 지자체 1년 예산의 5% 이내로 제한했으나, 허술한 협약을 통해 언제든지 대규모 자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주와 함평은 올해 예산 규모로 볼 때 지방채 발행하면 3~4%의 금리로 각각 120억원, 246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들 지자체 모두 이미 토지보상을 거의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한 뒤에야 뒤늦게 심사를

시청했다.

전남대 한 교수는 "단체장이나 공직자의 무책임한 자세가 문제"라며 "잘 되면 치적이 되고 안 되면 형세로 막으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가 이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실제로 기업유치, 고용 창출 등의 지역성장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금호아파트, 이마트, 서방사거리,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게임사거리 버스정류소, 산장리구, 게임초등학교, 호남직업전문학교, 홈플러스, 광주역

4,19정류소 55,98,151,518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다,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급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접수처**  
- 주소 : 전라남도 함평군 화교면 곡창리 산1-6  
- 담당 : 식음료팀 이상숙 팀장  
- 전화 : 061-320-7799  
- 이메일 : guy0818@hanmail.net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50년 전통 **대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관남로, 구.한미쇼핑, 현재주소, 무료셔틀이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내시/간행 일: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 진료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

서울에서 난리가 난 대박사업!  
저렴한 가맹비 및 창업비!  
2-3평 소형으로도 창업가능!  
조리가 필요없는 단순진열판매!

**1호점 슈니팡 총장로점** (광주우체국앞)  
3월 22일(금) 14시

• 광주 우체국

공전제과

2호점 **메가박스** 광주점 — 4월 5일(금) 14시  
3호점 **전남대점** — 4월 19일  
4호점 **전남 순천점** — 4월 20일  
5호점 **전남 함평점** — 4월 26일  
6호점 **광주 상무점** — 5월 3일  
7호점 **광주 수완점** —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주)슈니팡코리아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